

갈 곳 없는 '염전 노예들'... 다시 염전으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또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신안 지역 염전과 축사·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여 임금 체불·갑금 등의 인권 침해를 입은 63명을 찾아냈지만 21명은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가 당시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방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사후 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지역 염전노예 피해자 63명 중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에 6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10명은 가족에게 인계됐고 10명은 장애인생활시설에 머무르는 것 외 나머지 21명은 자신들이 일했던 염전에 되돌아간 상태다. 노숙인 재활시설을 무단이탈한 14명은 행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



신안서 구출된 63명 중 21명 복귀 노숙인시설 재활교육 제대로 안돼 후견인제도 허술·취업 알선도 全無 14명은 무단이탈...실질적 대책 시급

장애인사 피해자들이 전문시설이 아닌 노숙인 재활시설에 보내진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이 담당함을 호소하며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염전과 주인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을 제공하는 커녕, 노숙인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는 등 행정적인 수준에 머물르면서 적절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취업 알선을 하겠다는 방침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남도는 당시 구출된 피해자들을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시켰다.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라는 장애인 생활시설(14곳) 정원(840명)이 모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고작 6명만 장애인 시설 입소가 이뤄졌다. 적절한 재활

근 이유였던 것으로 전남도는 설명했다. 결국, 상당수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노숙인 시설에 머무르다 다시 '염전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장애인 쉼터'를 마련, 장애 의심이 가는 미 등록 장애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장애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년만에야 이뤄졌을 뿐이다.

장애인들에게 후견인을 연계, 급여관리, 인권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소송과 행정업무, 재산 관리만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건 당시엔 급작스러운 상황에 피해 장애인들을 제대로 된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었다"면서 "유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현재 피해자들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상한 법률용어 '각자'→'공동하여'로

사법연수원, 혼란 부른다는 지적에 바뀌 쓰기로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600만원 및 그 중 4800만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1700만원에 대하여 2010년 1월 10일부터, 4000만원에 대해 피고 A는 2013년 9월 1일부터, 피고 B는 2013년 10월 1일부터 각 2013년 11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민사 소송 판결문의 한 문장으로, 손희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참 봤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초등학생도 쓰지 않는 명문장이라 강의 시간에 견본으로 보여주며 수업 자료로 쓸 것"이라고 했다. 강희숙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어떻게 이런 문장의 해독이 가능한 것인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사법연수원이 '법조계만 쓰는 외계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각자(各自)'라는 표현 대신, '공동하여'로 바꿔 쓰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각자(各自)'의 경우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라는 국어사전상 의미와 달리, '공동해서'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됐다. 사법연수원 교재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인들의 경우 사전적 어원도 없는 정체불명의 법률 용어를 접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교수실 정수진 기획교수는 일반적인 의미와 판결문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데 따른 '과리' 등을 고려해 검토를 거쳐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대채무 등에 쓰이는 '연대하여', 어음·수표법에 적시된 '합동하여'와는 사뭇 다른 법리적 차이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은 또 광주지법을 비롯, 전국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등에 이런 사정을 참고해줄 것을 요청, '각자'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갭코 대표 상대 10억원 손해 청구 소송

광주시가 '100억대 국제 사기' 논란 끝에 무산된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GAMCO)과 관련, 관련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마은혁)는 9일 (주)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 갭코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소송은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따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미뤄졌다가 최근 이뤄진 1심 판결 이후 재개됐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마은혁)는 9일 (주)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 낸 소송가액은 10억 8800만원 수준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진행된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 테스트 비용 명목으로 빌려 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광주지법 설명이다.

해산 절차에 들어간 콘텐츠투자법인 대신 소송을 진행중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측은 광주시가 한미합작 투자사업에 선투자한 비용(71억)을 고려해 그만큼 추가로 배상 청구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박희준기자 bhi@kwangju.co.kr



9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행사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5·18 35주년 행사위 공식 출범...슬로건 확정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5주년 행사위)가 9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35주년 행사위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경과 보고 및 기조와 방향 설명에 이어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엔 김경길 상임행사위원장을 포함한 35

주년 행사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35주년 행사위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주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뒤, 35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으로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를 최종 선정했다. 슬로건은 '세월호 잠사 1주기', '민주주의 위기',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 등 이 시대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

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위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에서 제창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가보훈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11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 당원과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지역구 당원 등 영호남 정치인 300여명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예정이다. /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소액사건 지원 변호사제 본격 운영

광주변호사회 '나 홀로 소송자' 선임료 부담 줄이기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소액사건 지원 변호사제도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자'들을 감안한 조치로,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변호사 접근권'을 확보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0만원 이하 돈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 지원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사(訟事) 3년에 집안이 망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소액청구사건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선임료 부담 등으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수행자들이 적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이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청구사건은 55만원, 1000만~2000만원 사건에서는 착수금 55만원과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부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회는 또 유명무실화된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형사당직 변호사를 이용하면 체포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력을 얻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변호사회는 아울러 홈페이지를 개편해 변호사 안내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무료법률 상담, 노인법률 변호사단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단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

교통경찰 음주 단속에 딱 걸린 현직 경찰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도 받는다.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안경찰서 소속 박모(50) 경위는 전날 밤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자인 혈중알코올 농도 0.069% 상태로 운전을 한 혐

의(도로교통법 위반).

○...박 경위는 이날 남구 무등시장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에 가기 위해 차를 몰던 중 단속에 걸렸는데,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박 경위가 속한 지구대장 등을 상대로 지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끌기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원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62) 527-7600
010-7384-7800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③ 대지 210평 (1층 6칸)
-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 2층주택살면서 상가수익가능

매매가 3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원지구 모이밸777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전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학원, 사무실, 본사 적합)

※ 은행 중심가도 뒷 이면코너에 위치

- ① 평수 90평
- ② 층수 5층
- ③ 시설 리모델링, 학원 시설완비

주차장 무료 4대
주변 300대 확보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즉시 입주가능)

보증금 3천
월 150만

010-7384-7800
010-6832-97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 ②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6㎡) 감평가 6억6천, 최자가 3억6천
- ③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30㎡)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5백
- ④ 남구 노매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2천
- ⑤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① 북구 두암동 (3층상가겸 주택) (198㎡, 건물 512㎡)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 ② 광신구 소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자가 3억7천
- ③ 서구 쌍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자가 3억7천
- ④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자가 2억 1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2억9천
- ⑥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자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① 북구 일곡동 (1층 패셔닝)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자가 28억
- ② 북구 매곡동 (1층 조립식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1억
- ③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9억6천, 최자가 3억9천
- ④ 장성 삼계면 (2층건물) (토 1068㎡, 건물 631㎡) 감평가 2억5천, 최자가 9천1백
- ⑤ 담양군 금성면 (3층편선건물)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자가 9억9천
- ⑥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역사장)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자가 88억
- ⑦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1억3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 ① 경매 기본교육 + 실전위주 교육
- ② 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① 오전반 11시~12시 30분
② 오후반 2시 ~ 6시 사이
③ 저녁반 7시 ~ 9시
④ 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토목~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자가 3억7천
- 2 담양군 금성면 (펜션)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자가 9억9천
- 3 북구 두암동 근린 주택 3층 감평가 3억9천 → 최자가 3억9천

062-527-7600
010-7384-7800